

1. 사업명 : 갑천 생태문화해설사 양성교육

2. 사업목적

□ 대전지역에 맞는 하천 생태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태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 하천의 생태적 정보만이 아닌 갑천 주변에서 과거와 현재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갑천 유역 전체에 대한 전문 생태문화 안내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 양성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되면 2004년 말까지 갑천에 관련한 전문 홈페이지를 제작하려 한다.

□ 양성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2005년엔 청소년을 위한 ‘갑천생태문화기행’이란 책자를 만들어 보급하려 한다.

□ 대전지역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갑천생태문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

3. 사업의 의의

□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동안 대전지역에 맞는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 전반을 다루는 갖가지 환경학교, 환경기자단, 갑천청소년생태학교, 생명학교, 숲 체험 등이 있었지만 이는 대상자가 대부분 청소년과 교사로 한정되었고 1회성 환경교육으로 끝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교육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도자 또한 양성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이 부분이 대전지역 환경교육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회성 환경교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환경교육을 담당해낼 ‘환경교육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지역에 맞는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

대전지역에서는 지역의 생태와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변변히 없었으며 또한 이를 진행할 환경교육 지도자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제 갑천생태문화

해설사가 양성되는 것을 계기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의미 있는 환경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하천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대전을 떠나 먼 곳으로 생태기행이나 환경체험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대전을 대표하는 갑천을 주제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역의 하천살리기에 기여하는 갑천 홈페이지 제작

요즘 하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시의 많은 하천들이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대전시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의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하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천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하천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갑천생태문화해설사 교육을 이수한 환경교육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갑천의 역사, 문화, 생태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하천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갑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면 많은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로부터 훌륭한 교육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자원봉사자며,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들

갑천생태문화해설사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이다. 갑천을 주제로 하는 환경교육과 역사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환경 파괴의 현장을 감시하고 보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갑천 주변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몸으로 실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4. 사업개요

가. 수강생모집 및 선발

- 대상 : 30~40대 주부
- 인원 : 20명
- 선발 : 40명을 접수 받고 현장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참가 설문을 받아 선발
- 선발기준 : 현장오리엔테이션 소감문, 자기소개서, 수료이후 지속적 활동가능성
- 대상을 30~40대 주부로 하는 이유
 - 주부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 활동의 시간대를 공유하기 위한 것

- 30~40대의 주부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참여도와 향후 활동에 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그룹

나. 강의 진행

□ 1차 기본 교육

(2004년 9월 8일~10월29일 / 주 2회 수, 금요일 /총 15강 55시간)

주제	구분	시간	내용	강사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취지 및 이론적 배경	개강식	30분	오리엔테이션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역할과 중요성)		
	1강	이론	2시간	환경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심상옥선생
	2강	이론	2시간	하천이란 무엇인가?	양홍모부장
갑천이해하기 I (문화, 역사)	3강	이론	2시간	대전의 하천	안여중선생
	4강	현장	5시간	대전의 하천 답사	정기영간사
	5강	이론	2시간	갑천의 문화와 역사	안여중선생
	6강	현장	5시간	갑천 탐사 (발원지에서 금강합류점)	안여중선생
갑천이해하기 II (자연환경)	7강	이론/현장	4시간	갑천의 식물	이인세선생
	8강	이론/현장	4시간	갑천의 어류	홍영표선생
	9강	이론/현장	4시간	갑천의 조류	백운기선생
	10강	이론/현장	4시간	갑천의 곤충	조영호선생
해설의 이론과 실제	11강	이론	2시간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 역할과 해설기법	이재영선생
	12강	현지견학	7시간	열린사회시민연합 해설교육 견학	박정란선생
	13강	현장실습	5시간	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안여중선생
	14강	현장실습	5시간	해설에 적합한 2지점 현장실습	안여중선생
	15강	실습평가	2시간	해설평가와 분석	정기영간사
임명식		2시간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양성과정 평가 및 발표, 향후 활동 방향 갑천생태문화해설가 임명식		

□ 2차 실습교육 (2004년 11월 3일, 5일, 10일 총 4강 15시간 진행)

No		교육구분	시간	주 제	강 사
1	1강	현장견학	2시간	- 금강대전시계	정기영간사
	2강	현장견학	3시간	-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정기영간사
2	3강	실습교육	5시간	- 구봉산 산행과 노루벌 답사	안여종국장
3	4강	실습교육	5시간	- 별곡의 왜개연꽃과 야실마을 답사	안여종국장

다. 수료자격 : 갑천생태문화해설사 기본교육 15강 중 12강 이상을 이수해야 갑천생태문화해설사로서 활동 할 수 있다.

라. 홈페이지 제작

-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한다.
- 강연과 함께 진행되는 현장학습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정리한다.
- 2004년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 홈페이지 제작 후 지속적인 관리는 녹색연합과 갑천생태문화해설사가 한다.

5. 참가자 명단

이름	직업	연락처	비고
강정숙	주부		
김미희	“		
김영신	“		다른 일과 겹쳐 중도포기
노찬영	“		집안사정으로 중도포기
박혜란	“		
백승미	“		
석기문	“		
성옥순	“		
심현숙	“		
윤영옥	“		
윤은숙	“		
이경혜	“		
이영미	“		
이은미	“		
이은숙	“		
이희자	“		
정경례	“		
최수경	“		
한완숙	“		
최지형	“		

6. 사업내용

<1차 기본교육>

□ 개강식 및 제1강 <하천이란 무엇인가?>

- 1) 강좌 일시 : 2004년 9월 8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 3) 참석 인원 : 17명
- 4) 강사 이름 : 양홍모 선생
- 5) 강사 약력 : 대전충남 녹색연합 생태도시부 부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병미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개강

※ “하천이란 무엇인가?” (하천 세계)

① 하천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강(江)[명사] 넓고 길게 흐르는 내, 하천(河川)[명사] 시내. 강, 시내[명사]그다지 크지 않은 내, 개울[명사]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 일반적 의미 : 물이 흘러내리면서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며 흐르는 물이 기반을 이루는 유수생태계
- 법적·행정적 의미 :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하천법에서 하천의 정의)

② 하천을 다시생각해보기 (생태적 관점으로 하천 바라보기)

가. 하천의 기능

- 이수기능 : 수운, 농공업용수, 골재채취, 수력발전, 어로행위, 위락시설
- 치수기능 : 홍수조절, 오폐수 관리, 지하수의 공급
- 환경기능 : 수질자정작용, 생태계 서식처, 수변경관, 정서함양, 자연환경교육, 도시온도 및 기후조절, 바람길, 대기정화

나. 생태하천 :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 필요

- 하천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세계(자연공동체)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한다. 하천생태계는 육상생태계 그리고 전체생태계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다. 생태주의

- 생태주의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 지구를 생명체로 보고, 모든 생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③ 갑천생태문화해설사란?

- 갑천 : 대전(대전일대 모든 생명체)의 젖줄 - 대상
- 생태 :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 자연과 조화 - 공간적 의미
- 문화 : 과거의 흔적과 현재 그리고 미래 - 시간적 의미
- 해설사 : 생태하천 전도사(해설이 아닌 기회제공) - 도우미

④ 우리나라 및 대전 하천의 특징

- 동고서저형 지형 : 하천이 대부분 서쪽으로 향함
 - 대전은 남고북저형 지형, 하천이 북쪽으로 향함
 - 하천유역 면적 매우 넓음.
 - 경사각 큼 : 국토의 70%가 산지라 하천 경사각이 높음
- 금강과, 대전천 비교적 경사각 높음
- 하상계수 큼
 -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봄, 가을, 겨울
 - 갈수기엔 가뭄이 심함, 건천화, 치수 중심의 하천 관리
 - 산지에 내린 비는 1~3일이면 바다로 유입, 강수량의50%~70%가 바다로 유입
 - 홍수시 평상시 보다 유량의 100%를 유출시킬 필요가 있어 하천부지가 넓고 크다.

⑤대전의 하천행정 및 관리체계

구분	하천수	유로연장	관리주체		
			관리주체	계획수립주체	관리시행청
계	107개소	319km			
국가하천	4	74.7	건교부	건교부	대전시위임
지방1급하천	1	7.7	대전시	대전시	구청장위임
지방2급하천	26	121.2	대전시	대전시	구청장위임
소하천	76	115.4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⑥우리하천의 문제점

- 하천의 직강화와 호안정비
- 하천의 복개 및 콘크리트 시설물(도로, 주차장 등)
- 건천화
- 무분별한 하천 점용 및 이용

7) 평가

※ 교육생들이 강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강연 후 이어지는 질문시간에는 하천복원에 관한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 프로젝터를 사용한 것이 수강자로 하여금 집중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 강연이 예정시간보다 좀 길어져서 강연 후 진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집안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주부들이 있어 향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강 <환경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1) 강좌 일시 : 2004년 9월 10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 3) 참석 인원 : 19명
- 4) 강사 이름 : 심상옥 선생
- 5) 강사 약력 : 숲 연구소 교육위원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 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하는 환경교육
- 감성의 개발과 일깨움이 필요
- 경험과 체험하기

※ 환경교육의 역사

- 1970년대 유럽에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전달교육으로 시작

- 1990년대 공해문제에서 생태문제로 의식전환
- 체험학습의 필요성부각

※ 환경교육의 목적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 환경교육의 목표 :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알림.

※ 환경교육의 의미 : 교육생으로 하여금 생태적 도덕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행동(실천)하도록 하게 함.

7) 평가

※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주어 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 교육생들이 교육시간보다 다소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 강연 내용을 전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교육생들이 있었다.

※ 강연의 내용이 평이하고 어렵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제3강 <대전의 하천> (과거의 모습)

- 1) 강좌 일시 : 2004년 9월 15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 3) 참석 인원 : 19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선생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 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울' 회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별첨1> 대전 위성사진

※ 대전의 지형, 지세

- 남고북저형의 지형
-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분지형의 지형
- 대전의 하천들은 남쪽에 있는 산에서 발원한다.

※ 대전의 과거 모습

- 사진으로 보는 대전의 과거사

※ 3대하천의 과거의 모습

- 대전천의 과거의 모습
- 유등천의 과거의 모습
- 갑천의 과거의 모습

※ 과거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천의 이용실태

7)평가

※강연에 사용된 사진들과 영상물이 대전의 과거사와 하천의 과거모습을 알아보는 데 적절하였다.

※수강생 사이의 친분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 강연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대전토박이로 살아온 수강생들이 공감하는 사진들이 많아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강연에 참여하였다.

※하천의 과거모습을 통해 현재 하천의 변화된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다.

□ 제4강 <대전의 하천 답사> (대전천, 유등천)

- 1) 강좌 일시 : 2004년 9월 17일
- 2) 강좌 장소 : 대전천, 유등천
- 3) 참석 인원 : 18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정기영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 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울’ 회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 간사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대전천

- 유등천과의 합류지점에서 출발하여 발원지인 만인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답사
- 도심구간탐사 : 우수토실, 하수관거, 제방, 호안, 하천구조
- 조류탐조 : 백노류, 해오라기, 외가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
- 역사의 흔적 찾기 : 복개구간(목적교), 중교, 대흥교 부근의 10여년전 고수호안의 흔적과 옛 건물을 확인하고 현재 대전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
- 발원지 만인산 주변의 식생관찰 : 복분자, 달개비, 자귀나무, 물봉선, 등 다양한 식생이 관찰되고 있었다.

※유등천

- 만인산에서 보문산을 거쳐 유등천 상류로 이동하고 중류인 수침교까지 답사
- 침산교부근 생태계관찰 : 고라니 발자국, 여뀌, 억새, 갈대, 망초, 부들, 쭉부쟁이, 쇠무릎, 미나리아재비, 등
- 수침교부근 : 도심 내 하도정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자연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유등천의 모습을 관찰.
- 하중도 : 하천의 중앙에 모래톱이나 바위에 의해 마치 섬과 같은 형상을 갖는 하천의 구조로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준다.
- 여울 : 하천바닥의 자갈한 돌과 바위에 물이 부딪쳐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민물고기의 서식처를 만들어준다.
- 수중정화식물 : 갈대와 억새, 갯버들, 창포, 줄 등으로 대표되는 수중정화식물은 고유의 시스템에 의해 수질을 정화하고 있다.

7) 평가

※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진행된 답사였지만, 수강생들의 높은 열의 덕분에 강사와 참석자 모두 만족하는 현장답사였음.

※ 다양한 내용을 한꺼번에 교육하여 교육생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였다.

※ 교육생들의 회장과 총무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 제5강 <갑천의 문화와 역사>

- 1) 강좌 일시 : 2004년 9월 22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 3) 참석 인원 : 19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선생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 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울' 회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역사속의 갑천

- 이중환의 <택리지> 속의 갑천
- 이서구 선생의 이야기 속의 갑천
- 갑천을 따라 곳곳에 남아있는 성곽을 통해 보는 역사속 갑천의 의미

※ 갑천의 지형과 주변 마을들

- 갑천의 발원지 대둔산 수락계곡과 태고사
- 노루가 뛰어가는 형상의 노루산 밑의 노루벌
- 뛰어난 풍수를 지니고 있는 야실 마을
-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용산과 용두바위 그리고 미림이 마을
- 소정방이 군사가 백제부흥군을 정벌하기위해 잠시 머물렀다하여 정방이 마을
- 소정방이 군사와 백제부흥군의 격전지 진현성
- 도솔산 월평공원과 도심 속의 자연하천구간
- 겨울철새들의 휴식처 탐립돌보

7) 평가

- ※ 슬라이드를 통해 보는 갑천의 모습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였다.
- ※ 갑천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역사 흔적과 옛 마을의 모습은 다음 현장교육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수강생들에게 연계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강연자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 강연을 생동감 있게 진행하였고, 수강생들 또한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 제6장 <갑천 탐사> (발원지 대둔산에서 금강합류지점까지)

- 1) 강좌 일시 : 2004년 9월 24일
- 2) 강좌 장소 : 갑천
- 3) 참석 인원 : 18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선생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 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울' 회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갑천 발원지 답사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대둔산의 태고사 장군약수터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수락리 대둔산의 수락계곡

※ 갑천의 상류에 위치한 마을 답사

- 덕곡리의 중보실 마을 : 예전의 농업용수로써 이용하여 집 앞에 빨래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마을, 하천의 수질이 깨끗하여 빨래를 하는 아낙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갑천의 제1지류 두계천의 무도리 마을 : 두계천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 지나간다 하여 무도리 마을이 되었다 한다. 무도리 마을 앞 두계천에서는 흰뺨검둥오리와 원앙이, 백로와 왜가리가 관찰된다.

- 왜개연꽃 제1군락이 형성되어있는 양산교 부근, 제2군락이 형성되어있는 신양교 부근

- 노루산 앞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노루벌에서 듣는 구봉산의 전설과 자갈톱의 형성배경 그리고 습곡의 형성

- 6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갑천과 함께 살아온 괴곡동의 느티나무

7) 평가

※ 발원지에서 합류점까지 답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중간에 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발원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시간을 적당히 안배하지 못하였다. 남은 구간은 보충학습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 현장에서 생태계를 직접 만나는 강연이어서 수강생들의 갑천 생태에 대한 관심 속에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 대전에서 갑천의 지리적 개념을 수강생들 스스로가 정리 할 수 있는 강연이었다.

□ 제7장 <갑천의 식물>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1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월평공원
- 3) 참석 인원 : 19명
- 4) 강사 이름 : 이인세 선생
- 5) 강사 약력 : 대전충남생명의 숲 사무국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나무와 풀의 차이 : 근본적인 차이는 나무는 부피생장을 하고 풀은 길이생장을 한다.

※ 식물분포의 특성 : 식물은 종류에 따라 생육장소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기적인 환경조건(기후, 토양, 지형)과 경쟁과 공존 등의 규제 조건에 기인한다.

※ 초본의 생활형 : 지상식물, 지표식물, 반지중식물, 지중식물, 수생식물, 1년생 식물

※ 나무 이름 짓는 방법

-뽕나무 : 뽕나무의 열매(오디)는 맛이 좋아 많이 먹어 방귀를 뽕뽕 끼게 된다고 하여 뽕나무란 이름을 지었다.

-신갈나무 : 나무꾼들이 숲 한가운데서 짚신 바닥이 떨어지면 이 나무의 잎을 사용했다 하여 신갈나무란 이름을 지었다.

-떡갈나무 : 잎으로 떡을 싸서 오래보관 할 수 있었다하여 떡갈나무란 이름을 지었다.

※ 숲 해설의 실제 (월평공원현장교육)

- 소나무 : 리기다소나무(3잎), 적송(2잎), 잣나무(5잎)
- 참나무 : 상수리, 줄참, 갈참, 줄참, 신갈, 떡갈
- 국수나무, 때죽나무, 산초, 청미래덩굴
- 침엽수림대와 활엽수림대의 형성과 그 속에서의 경쟁
- 육상생계(월평공원)와 수상생태계(갑천)가 연결되는 지형의 특징

7) 평가

※ 이론 강연과 현장강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육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강연이 되었다.

※ 복잡하고 다양한 식물의 구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쉬운 것, 항상 접하며 무심히 지나쳤던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 육상생태계와 수상생태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여 추후 보충교육을 필요로 했다.

※ 현장교육에 비중을 두려 하였으나 시간과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교육은 시간조절이 필요하다.

□ 제8장 <갑천의 조류>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6일
- 2) 강좌 장소 : 갑천 탐립돌보, MBC방송국 앞
- 3) 참석 인원 : 19명
- 4) 강사 이름 : 백운기 선생
- 5) 강사 약력 :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조류생태 이학박사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조류관찰방법 및 수칙

- 조류의 특징 및 관찰준비
- 조류관찰 장비의 사용법(필드스코프, 쌍안경)
- 조류관찰시 주의사항

※ 갑천에서 관찰된 조류

- 쇠오리 : 오리 중에 가장 작은 오리이며 수컷의 깃털이 아름답고 눈가에 어두운 녹색이 목뒤까지 이어져있다. 날개에 흰색 가로줄무늬가 있다.
- 흰뺨검둥오리 : 뺨이 하얗고 부리 끝이 노랗다. 다리는 주황색에 가깝다. 날개 끝에 흰줄무늬가 있다.
- 청둥오리 암컷
- 쇠백로 : 백로류 중에서 가장 작은 백로, 부리가 검고 가늘고 길다. 다리는 검고 발이 노랗다.
- 중대백로 : 백로류 중에서 몸집 큰 백로이며 부리가 노랗고 다리와 발이 검다.
- 왜가리(젯빛 백로), 황조롱이(매과의 새이며 천연기념물 323호)

※ 필드스코프를 사용하여 조류 동정하기 실습

7) 평가

※ 전체가 현장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2곳의 관찰지점에서 현장실습과 강연이 이루어졌다.

※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부근 탐립돌보에서 진행된 현장강연에서 여러 종류의 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곳은 겨울철새들의 도래지가 되고 있는 곳이어서 향후 이 지점에서 조류탐조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 MBC방송국 앞 갑천과 유등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백로류를 관찰하였으나 주위에 대규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새들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스코프와 쌍안경등의 장비를 다루는 연습이 필요하다.

□ 제9장 <갑천의 민물고기>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8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노루벌
- 3) 참석 인원 : 18명
- 4) 강사 이름 : 홍영표 선생
- 5) 강사 약력 :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어류생태 이학박사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어류학입문

- 척추동물의 조상적인 어류
- 척추동물 중 가장 많은 분류군을 갖는 어류 (4만여 종의 척추동물 중 2만5백여 종의 분류군을 갖는다.)
- 어류는 지느러미로 움직이며 아가미로 호흡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 어류의 60%는 민물고기이다. 민물고기에는 소하성어류(산란기에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어류: 연어, 은어)와 강해성 어류(산란기에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어류: 뱀장어) 그리고 순수민물고기가 있다.

※ 물고기를 분류하는 방법

- 물고기는 체형, 입의 위치, 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기조로 분류

※ 민물고기 관찰 기록지 : 채집일자, 채집장소(주소지 및 위도,경도), 채집시간, 일기상황, 채집자, 이름(학명), 주변환경, 사진등을 기록

※ 하천의 위치별 서식물고기의 종류

※ 채집도구 및 채집시 주의사항

※ 현장에서 채집한 어류

피라미, 갈겨니, 돌고기, 동사리(특산종, 어식성), 모래무지, 밀어, 가시납지리, 긴물개, 돌마자, 각시붕어, 참종개

7) 평가

※ 생태계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면서 교육생들이 개체의 이름 알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생태계를 전체 연결하여 생각하는 포괄적인 사고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다.

※ 어류를 채집하는 과정과 채집 후 관찰하는 과정, 그리고 해설하는 전 과정을 체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집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 채집현장이 갑천의 중상류 지점이어서 동사리와 같은 특산종도 발견되고 있어 향후 해설교육의 주요지점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0강 <갑천의 곤충>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13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갑천 자연하천구간(도안뜰)
- 3) 참석 인원 : 18명
- 4) 강사 이름 : 조영호 선생
- 5) 강사 약력 : 대전대학교 이학박사 생물학전공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곤충이란무엇인가?

- 절지동물 - 외골격, 체절제, 마디발
- 절지동물문(Arthropoda)
 - 삼엽충아문(Trilobita) - 5~6억년 전 고생대에 번성
 - 협각아문(Chelicerata) - 턱이 없고, 4쌍의 다리를 포함하여 6쌍의 부속지가 있다.
 - ex) 거미강(Arachinda) : 거미, 전갈류, 진드기
 - 대악아문(Mandibulata) - 큰 턱을 가지고 있다.
 - ex) 갑각강(Crustacea), 다지류(Myriapods) - 노래기강지네강, 곤충강(Insecta)

※ 곤충의 역사와 번성

- 곤충의 출현
 - ①무시류의 출현 - 약 4억년 전, ex) 현재의 좀과 유사
 - ②유시류의 출현 - 약 3억년 전
- 곤충의 번성
 - ①외골격
 - ②날개가 있다.
 - ③체구가 작다.
 - ④짧은 생활사와 높은 번식능력

※ 곤충의 다양성

- 동물의 종 수
 - Linne (1758) : 4,162 종
 - Mobius (1898) : 41만 5,000종
 - Myar (1969) : 107만 종
 - Gaston (1991) : 500만 ~ 3,000만 종
- 곤충의 종 수
 - ①전 세계 : 약 150만 종의 동물 중 120만 종을 차지하며 약 30목 (벌목, 파리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노린재목, 잠자리목 등)
 - ②한국의 곤충 - 30목 777과 10,240종
 - ③대전의 곤충 - 16목 113과 824종

※ 곤충의 생태

- 곤충의 습성과 서식처

① 곤충의 습성 : 포식자, 부식자, 기생자

② 곤충의 서식처 : 땅 속 혹은 지표면, 식물체 내외, 동물체 내외, 수중 혹은 수면

※ 하천에서의 곤충 역할

- 수서곤충 : 생활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중에서 생활하는 곤충류 (각다귀류, 부채하루살이, 왕잠자리, 줄날도래)로써 물속에서 1차소비자, 부식자, 포식자, 또는 다른 생물의 먹이원이 된다.

- 수변곤충 : 하천의 주변의 식물을 먹이원 혹은 서식처로 이용하는 곤충류 (날개띠줄잠자리, 검은물잠자리, 고추잠자리)로써 하천주변의 식물상 및 동물상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변곤충이 주변의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면 식물의 수분을 도와준다.)

※ 지표종 (하천의 급수에 따라 서식하는 곤충)

- 1급수 : 옆새우류, 가재류, 강도래류, 뱀잠자리류

- 2급수 : 강하루살이류, 동양하루살이류, 날도래류

- 3급수 : 거머리류, 연못하루살이류, 잠자리류

- 4급수 : 실지렁이류, 잠자리류

- 5급수 : 실지렁이류, 나방파리류, 깔다구류(붉은색), 꽃등에류

※ 곤충관찰의 기법

- 채집이 아니고 관찰이다.

- 관찰준비물 : 포충망, 독병(곤충을 기절시키는 약품이 들어 있는 병), 삼각지(기름종이로 나비의 날개를 상하지 않게 잡도록 하는 것), 사진기, 채집통, 돋보기, 핀셋, 야장, 녹음기, 복장

- 관찰목적수립

- 야장기록 (조사일시, 동행자, 조사지역, 조사지환경, 시간, 날씨, 기록내용, 특이사항)

- 관찰 및 야장에 기록한 정보정리

7) 평가

※ 너무 많은 곤충종이 채집되면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개체의 이름알기에 더욱 집착하게 하였으며 주요한 특징들을 배우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 채집도구의 사용이 숙달되지 않아 채집시간이 길게 배정되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채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 하천주변과 수중에서 곤충들이 다양하게 번식하면서 하천변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자라고 있으며 어류와 조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좀더 다양한 곤충관찰을 위해서는 여름 야간에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1강 <해설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15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금강합류지점
- 3) 참석 인원 : 18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선생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 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울' 회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우리는 왜 갑천생태문화를 해설하는가?

- 하천살리기 운동의 하나의 방법
- 지역의 환경운동의 주요한 한 부분
- 작게는 각자의 가정에서 크게는 지역전체의 환경교육을 담당
- 갑천의 생태와 문화를 바르게 알려내기 위하여
- 스스로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 해설 어떻게 할 것인가?

- 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나의 자녀를 대하듯이 해설한다.
- 체험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철저한 사전준비 기간을 갖는다.
- 대상(초, 중, 고학생, 일반인,)에 따라 구별되는 해설을 준비한다.
- 하천과 어우러진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향후 필요한 부분(교육생들의 의견)

- 갑천 전체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필요
- 환경과 생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좀더 심화된 학습이 필요

※ 현장교육

- 금강상류 대청호 탐사, 갑천과 금강합류지점(봉산동, 송강동, 오봉산)

7) 평가

※ 강연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해설을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교육생들이 나타나고 있다.

※ 부담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생스스로가 지속적인 교육과 심화학습을 원하고 있다.

※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지점(오봉산)에서 갑천의 하류모습과 그 주변에 펼쳐져있는 신탄진의 공단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지역의 지형을 학습하기 좋은 곳이었다.

※ 전체 교육생을 좀더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프로그램이 향후 진행되어야 하겠다.

□ 제12강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 역할과 해설기법>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22일
- 2) 강좌 장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장
- 3) 참석 인원 : 17명
- 4) 강사 이름 : 이재영 선생
- 5) 강사 약력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해설사란 무엇인가?

- 환경교육의 하나의 분야이며 대상지와 방문자의 관계를 맺게 해주어야한다.

※ 해설의 목적

- 방문자 입장 : 즐거움,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 장소의 입장 : 대상지 가치보존을 위한 중요한 과정
- 해설사의 입장 : 긍정적이며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 해설사의 역할

- 자신의 관심과 경험에 근거하여 방문자와 대상지의 관계를 맺어주는 교량과 같은 역할
- 체험과 경험의 차이
- 체험이라 함은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순간을 말하며 경험이라 함은 시간을 두고 누적되어진 것을 말한다.

※ 체험을 경험의 일부로 만드는 것

- 나와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시간을 두고 자신의 것으로 기억하게 한다.

※ 환경 :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

※ 생태 : 인간을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자로 보는 것.

7) 평가

※ 해설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마음의 자세와 해설사들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하여 쉽게 설명해주었다.

※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며 해설사가 느끼고 있는 감동과 경험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 교육생들 스스로가 대상지(갑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후속 프로그램에서 진행해야 한다.

※ 해설사라는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한 것 같다.

※ 사랑하면 알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면 전과 같지 않다.

□ 제13강 <열린사회시민연합 해설교육 견학>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23일
- 2) 강좌 장소 : 안양천
- 3) 참석 인원 : 12명
- 4) 강사 이름 : 박정란 선생
- 5) 강사 약력 : 열린사회시민연합 관악·동작시민회 사무국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도림천, 안양천 기행 프로그램 내용

①인사 및 소개, 기행 지점에 대한 개괄적 소개

②포인트 선정 및 그림 그리기

- 1m 정방형의 면적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을 세밀화로 그림을 그리고 같이 발표하며 이야기한다.

③자세히 관찰하기

- 루빠를 사용하여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식물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④미래의 하천 모습 그리기

- 모둠을 나누고 모둠별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하천을 그리고 발표해보며 내가 원하는 하천의 모습을 형상화해본다.

⑤종이끈을 이용하여 지네 만들어 보기

- 종이끈을 이용하여 지네 혹은 자신이 상상하는 생명체를 만들어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길러주는 창작활동으로 향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7) 평가

※ 기존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해설사들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향후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을 되도록 많이 유도해내고, 많이 들어주는 체험학습이었다.

※ 수업을 흐트리는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방법(자꾸 떠들면 볼에 뽀뽀해준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정해진 시간을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으로 쓰고자 일일이 허용시간을 짚어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워야 할 점이다.

※ 주진행자를 제외한 보조 해설사들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가 진행할 프로그램에서는 특정한 한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기획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견학을 했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견학에 참가한 교육생들도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아 보였다.

□ 제14강 <해설에 적합한 두 지점 해설실습>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2) 강좌 장소 : 봉곡동 (야실마을), 흑석동 (노루벌), 괴곡동(새뜸마을)
- 3) 참석 인원 : 16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선생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울’회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괴곡동(槐谷洞) 새뜸마을 이야기

이곳에는 문헌으로 약 65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입니다. 동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느티나무골입니다. 이 마을은 현재까지도 정월이 되면 느티나무에 제를 지내고 있는 마을이며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마을은 고릿골이라 합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갑천가에 있는 동네를 새뜸(新村)이라 하는데 이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갖는 의미는 갑천과 함께 650년을 살아온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자연 앞에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느끼게 되며 갑천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 야실마을 이야기

이 지점부터 갑천이 본격적으로 국가하천으로 불리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대둔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갑천 본류와 계룡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두계천이 만나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예부터 두개의 하천이 만나면서 수량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어 갑천과 두계천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야실마을, 정방이마을, 미리미마을, 시누리마을등 재미난 유래를 갖는 동네들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얼마 전 대대적인 하도정비 작업이 실시되면서 하중도와 여울 등 하천의 자연형의 모습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주변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 노루벌

갑천의 비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구봉산과 노루산이 갑천의 좌우에 있으며 갑천의 물줄기가 구봉산을 만나면서 S자 모양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두 마리의 노루가 뛰어노는 모양의 산(노루산) 앞에 넓게 펼쳐져있는 벌판이라 하여 노루벌이라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할미꽃과 애기똥풀 그리고 다양한 야생초들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7) 평가

※ 교육생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좀더 준비해서 발표하기를 희망하였다.

※ 하천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다루어 주는 것이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 몇 차례의 현장 실습과 답사를 통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갑천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주요지점들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가고 있다.

□ 제15강 <해설평가 및 분석>

- 1) 강좌 일시 : 2004년 10월 29일
- 2) 강좌 장소 : 야실마을, 노루벌
- 3) 참석 인원 : 15명
- 4) 진행자 : 정기영 간사
- 5) 진행자 소속 : 대전충남 녹색연합 생태도시부 간사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갑천의 야실마을과 노루벌을 해설 지점으로 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5분동안 해설한다는 가정하에 교육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시연하였다.

최수경 - 건강한 하천과 갈잎의 노래

이은미 - 갑천의 이야기

이영미 - 야실마을과 갑천 주변의 마을

이경해 - 수생식물이란 무엇일까?

이희자 - 하천의 유형과 형태

강정숙 - 하천이란 무엇인가?

윤영옥 - 하천을 정화하는 수생식물

윤은숙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백승미 - 노루벌에서 자라는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

이은숙 - 갑천 주변의 오래된 이야기

김미희 - 갑천과 나

석기문 - 갑천에 사는 물고기들

최지형 - 갑천과 관계를 맺어봅시다.

성옥순 - 나를 소개해봅시다.

한완숙 - 갑천에서 전해지는 재미난 이야기

7) 평가

※ 지난 수요일에 진행하지 못한 개별적 해설을 준비하여 우선 관심사와 편의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5분말하기를 진행하였다.

※ 교육생간의 연령별, 관심분야별, 집중도별 편차가 나타났으며 말하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교육생들, 놀이체험에 재능을 보이는 교육생이 확인되었다.

※ 각개인마다 하나이상의 장점이 나타났으나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교육생들이 일부 확인 되었다.

※ 앞으로 꾸준히 5분간 말하기를 진행하여 언제어디서나 자유롭게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해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차 실습교육>

□ 제1강 <시화호갈대습지공원 견학>

- 1) 강좌 일시 : 2004년 11월 5일
- 2) 강좌 장소 : 시화호
- 3) 참석 인원 : 15명
- 4) 안내자 : 수자원공사 직원
- 5) 견학내용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의 수질정화원리>

※ 침전지

유입수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 고형물 등을 침전시켜 제거하는 역할과 유량을 균등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인공습지

① 습지

- 습지에 사는 갖가지 식물의 줄기와 잎은 물의 흐름을 굴절시키고 물의 속도를 줄여 부유물질이 가라앉도록 한다.
- 식물의 줄기와 뿌리는 오염물질을 영양분으로 흡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갈대 등 식물의 줄기 및 뿌리는 각종 부착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② 미생물

- 미생물은 물속에 존재하는 부유상미생물과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서식하는 부착미생물로 분류되며 물속에 녹아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흡착, 분해하여 물을 정화한다.

※ 갈대습지 수질정화원리

갈대습지는 자연의 오염정화기능을 인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주체거대상 오염물질은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을 들 수 있다. 습지내 오염물질 제거는 수생식물과 미생물군 등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와 침강 등 물리적인 처리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6) 평가

※ 기존의 계획은 갑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등을 견학하고 그 시설들의 정화 및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교육하기로 하였는데 견학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화호갈대습지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 거리가 멀어서 모든 해설사들이 함께하지 못하였다.

※ 갈대를 이용한 자연정화시스템에 대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며 하천에서 흔히 보는 정화식물들의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 미리 찾아온 겨울철새를 관찰하려 하였으나 그다지 많은 종의 철새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 제2장 구봉산과 노루벌체험

- 1) 강좌 일시 : 2004년 11월 12일
- 2) 강좌 장소 : 구봉산
- 3) 참석 인원 : 15명
- 4) 강사 이름 : 안여중 선생
- 5) 강사 약력 : 한밭문화마당 사무국장, 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여울’회장
- 6)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 구봉산 이름의 유래

- 구봉산 이름은 그 봉우리가 아홉 개라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아홉 개인 것도 같고, 열 개인 것도 같고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대고개부터 비재까지 큰 고개가 아홉인데, 어느 만큼 높은 봉우리까지 세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진다. 예부터 아홉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짝수는 음(陰)이고, 홀수는 양(陽)을 뜻하는 것으로 그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아홉인 것이다. 그래서 구봉산에도 봉우리가 많다는 뜻으로 구봉산이란 이름이 붙었던 것이라 한다.

※ 구봉산 주변의 마을

- 가수원동, 관저동, 원정동

- 괴곡동 : 선골(선곡)은 고리골에서 동쪽으로 갑천 건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옛 이름은 마을지형이 배의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선곡이라 하였는데, 근래엔 선인들이 내려와서 놀고 갈 만큼 아름다운 계곡이라 하여 선곡으로 불리고 있다.

-봉곡동 : 봉곡이란 이름이 나타난 것은 그리 역사가 길지 못하다. 오히려 세점이 이 마을의 전통지명으로 더 타당하다고 한다. 바깥세점과 안세점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냇물에서 과거에 쇠를 채취했고 그로부터 철점, 쇠점 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쇠점은 한자로 금곡이라 하였다 한다. 이후 쇠점은 음운 변이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을 쇠점이라 부르게 된 것은 고려시대 이곳에서 캐던 금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갑천과 두계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마을)

-흑석동 : 거문들(금평)이 와전된 흑석동은 옛날엔 금평이라 하였다. 그것은 이곳에 옥녀탄금형의 명당이 있는 들이라는 뜻에서 금평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 금평의 우리말은 거문들 이었다. 이 검은 들이 후에 와전되어 거문은 검은(흑)으로, 들(平)은 돌(石)로하여 흑석으로 변용 되었다.

7) 평가

※ 구봉산은 갑천이 흐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개의 산중에 하나로 정상에 올라 갑천의 흐름을 지역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갑천을 중심으로 하며 구봉산자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들을 살펴보는 것은 갑천의 또 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갑천이 금강과 만나는 하류쪽의 모습(오봉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과 중상류지역인 구봉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비교해보며 하천의 흐름에 따른 지형의 변화,

도심내부에 정비된 하천과 자연형하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학습공간이 구 봉산이었다.

※ 평면적으로만 바라보던 하천을 공간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하천의 모습을 익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 제3강 갑천의 마을조사하기

- 1) 강좌 일시 : 2004년 11월 17일
- 2) 강좌 장소 : 갑천 상류쪽 마을
- 3) 참석 인원 : 12명
- 4) 진행방법 : 전체 참석인원 12명을 3명씩 짝을 지어 4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각각 갑천 상류쪽 주변의 마을을 약 2시간정도 직접 걸어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유래와 주요 항목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 5) 조사내용

<야실마을>

- 조사마을 : 야실마을
- 조사자 : 심현숙, 최수경, 이경해
- 만남이 : 조양준 할아버지(72세, ██████████)

▷ 마을의 어른들: 최고령 100세 안노인네(여,며느님이 모시고 삼), 유근서할아버지(93세, 외지에서 이사 와서 동네에 관심이 없음), 동갑내기 김영신할아버지와 본인 조양준할아버지

▷ 야실의 유래 : 야실매의 약자라는 것 말고는 달리 알지 못하심.

▷ 가구수 : 옛날에도 30여호 지금은 27호로 빈집이 2호 있었고,수구막이를 돌아 가면 8호가 더 있음.

▷ 수구막이 소나무 : 흙을 지개로 퍼날라 둔덕을 만든 후 소나무를 심음. 수령 200여년.

나뭇가지로 눈에 그늘이 저도 가지를 꺾거나 나무를 해하지 못하는 동네의 규약이 있음. 마을왼쪽 바위가 더 옆으로 튀어나왔으면 산세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 수구막이를 위해 바위 옆으로 마을을 둘러치며 느티나무를 심어놓았으나 다 죽음.

▷ 동구나무 : 마을입구의 느티나무를 말하며, 63년전 흑석산성이 있는 산에서 어린묘목을 캐다가 심었으며, 2년전 61년을 기념하는 회갑연을 못해준 것이 못내 한이 됨.

▷ 제방 : 한뜸산(대둔산)천과 신도안(두계천)이 만나다보니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물 넘기를 밥먹듯이 했고, 아래 보 때문에 밑에서 물이 먼저 차올라 옴. 자다가도 징소리가 나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야 했고, 그래서 미리 산위에다 하우스를 지어놓고, 만약을 대비하기도 함. 산에 나무가 없다보니 집집마다 명석을 쳐서 물길을 막기도 함. 정부에서 논을 사들여 천을 넓히고 제방을 높게 쌓아줌.

▷ 떼다리 :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떠내려가서 섬이나 다름이 없어 학교도 못 다님. 갈목을 받히고 대못을 박은 후 동아줄로 묶어서 두꺼운 떼를 떠서 올려놓았음. 밟고 지나가면 출렁이다보니 양쪽에서 요동을 잘못타면 다리에서 떨어져 강으로 떨어지기 일쑤. 강둑이 높아지기 이전엔 강가에 떼가 많았지만, 산에 나무가 귀해서 떼다리도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

▷ 아나방 : 구멍 송송 뚫린 쇠판을 위에다 올려놓은 다리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아나방을 훑쳐들고 갔음. 빼닥구두 신은 처녀의 구두뒷축이 구멍에 빠져 애먹는 게 재미있었음. 대덕군수가 세면돌이 600포대를 주고 시멘트다리를 놓았으나, 이도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금의 이 다리를 놓게 되었음.

▷ 야실교 : 다리중앙이 폭 올라와야 하거늘, 폭 꺼져서 영 보기도 싫다고 함. 다리 밑에 버드나무가 크게들 자라고 있어 행여 큰물이 나면 물이 넘치거나 있는 다리에도 좋질 않을 것 같으니 죽기 전에 힘 좋은 사람들이나 정부에서 꼭 베어주었으면 하는 바람.

▷ 교통편 : 버스를 타려면 구름다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살기가 참 안 좋은 동네라고 불평.

▷ 시장 : 한나절하는 흑석장에 갔었으나, 대전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농협으로 간다고함.

▷ 도로포장 : 이종태라고 하는 이장이 밭주인과 땅주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허락 맡아서 마을길을 죄다 시멘트포장을 해주었음. 공덕비라도 세워주자고 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해주지 못하고 작년에 돌아가심. 이 마을이래 최고의 공을 들인 인물이라 평함.

▷ 어로행위: 옛날에는 모래무지 등 많은 물고기를 회로 먹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익혀먹어야 함. 두계천보다 갑천 쪽의 물살이 세서 물고기의 맛도 좋고, 다슬기의 맛도 좋다고함.

▷ 바위 위 불상: 금년 목수일을 하는 마을사람이 이사를 와서 불상을 세워놓았으나 마을에 좋다고 하니 아무도 말이 없음.

▷ 배추밭에서 일을 보시던 할아버지를 만나 익히 인터뷰 경험이 있으신 듯 술술 풀어내는 말씀 뒤에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자며 집으로 안내를 하셨다.

도시 아파트공사장으로 일 나가신 할머니가 앓계신 빈집이었지만, 부지런한 할머니는 집안 곳곳 깨끗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살림이 반짝거렸으며, 할아버지 점심반찬으로 조기두마리를 후라이팬에 쇠고기국을 가스렌지에 구운김까지 준비해놓으시는 정성을 보여주셨다.

배산임수라 야실마을은 참으로 낭만과 멋이 있는 살기 좋은 동네로 생각했으나, 숙내를 알고 보니 넘는 물로 인하여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던 동네, 지금도 버스마저 들오지 않아 사람살기 불편한 동네, 자손대대 누구하나 잘 된 사람이 하나 없는 동네...

물난리와 고립 속에서 속을 썩고 살다보니 자식들도 흔들림이 많았었구나...하는 마음이였다. 아이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시골동네에 말벗이 되어드린 것 같아 흐뭇했고, 아직도 시골은 이렇게 정이 남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에 마을을 뒤로 한 다리

를 건너며 발걸음이 경쾌했다.

<평촌동>

- 조사마을 : 평촌동, 증촌동

- 조사자 : 백승미, 이은숙, 이희자

▷ 정감록에 "연동진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연산의 동쪽 진잠의 남쪽이 난리를 피해 만명이 살수 있는 곳이라는 뜻. 그래서인지 6.25전쟁 때에 타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큰 인명피해가 적었다고 한다. 증촌이 유씨들의 세거지인 반면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평촌은 각각 다른 성씨들이 살고 있음. 평촌마을회관 옆에 방앗간이 있고 마을 입구에 기성농협도 있어서 마을 규모가 크고 번성해 보였다

▷ 도선바위

고인들의 세움돌이 없어진 덮개석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려의 개국을 예언한 도선대사가 이 곳의 지형이 많은 인물이 날 곳이라고 춤을 추었다는 일화가 있다. 예전에 방앗간 건너편에 있던 것을 신작로를 닦으면서 마을회관 앞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유서 깊은 고인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없이 회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 아쉬웠다. 몇 년 전에 이윤지(87세)할머니가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고 도선바위에서 1년에 한번 지내는 마을제도 주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사는 천안으로 이사가셨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제도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함. 개인적으로 치성드릴 일이 있으면 와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 평촌동 할머니, 할아버지 : 우리가 찾아갔을 때 마침 마을회관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만났다. 인터뷰를 청하니 "머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저 아래에 가서 물어봐" 라고 생뚱맞게 대꾸하시더니 몇 번 더 청하자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 할머니들

▷ 평촌의 가구수는 약 120여호

▷ 마을 인구는 300여명

▷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이 살고 계신다 함.

▷ 마을 최고연장자는 83세 된 할아버지이고 70 ~ 80세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임.

▷ 김사규할아버지(80세)

방앗간 삼거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심. 행정수도 이전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지금은 거래가 딱 끊긴 상태라고 한다. 이 마을의 자랑거리인 지경다지기의 진사역을 맡아 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 예닐곱분이 화투패를 쥐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계셨다. 가을걷이도 끝나고 한가한 할아버지들이 부동산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림도 보시고...

▷ 김인중할머니((79세)

마을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시다가 "머 애깃거리가 있어야지" 하면서 도선바위에 철푸더기 앉아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이곳 평촌에 시집 와 55년째 살고 계신다. 건장한 체구에 등이 약간 굽은 모습, 오랜 세월 논일 밭일로 구릿빛 그늘은 얼굴엔 받고랑처럼 굽은 주름이 할머니의 이

력을 말해 주는 듯.

지경다지기놀이에 대해서 묻자 김인증할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할머니들도 앞다투어 한마디씩 거든다. 할 얘기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은 것이 이 마을의 지경다지기이다.

▷ 지경다지기 놀이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지는 공동체 놀이 의식이다. “땅과 사람이 하나이다”라는 풍수사상에 기인한 의식. 예전에 실제 집을 지을 때 하는 의식이었으나 지금은 민속경연대회 때에나 하는 놀이가 되었다. 땅을 다지는 지경들에 줄을 매어서 여러 사람이 땅을 다진다. 지경다지는 소리를 매겨서 흥을 돋운다. 집주인인 진사와 진사댁이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대접하고 잔치 분위기를 돋운다. 평촌동과 증촌동의 사람들이 80여명이 이 놀이를 길현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한다. 영주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탔다.

노은동의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 초청 받아 가서 경기장 터를 다져 줄 만큼 인정받는 민속놀이이다. 또 한밭문화제, 갑천문화제 등에도 자주 초청 받아 출연하는 막강한 팀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우리를 귀찮게 해" 라고 빼기시는 것도 잊지 않는 할머니들.

마을 분들은 이 유서깊은 지경다지기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이 남아있어 조사하는 우리도 매우 흐뭇했다.

▷ 버스노선은 4번, 21번, 24번, 26번이 있고 배차간격은 30분에 한대씩 다니고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버스를 타고 주로 도마동시장을 이용한다.

▷ 플라스틱 공장 : 플라스틱 김치통을 만드는 공장이 마을 가운데 있다. 농한기에는 이곳으로 일하러 가기도 한다.

▷ 평촌마을을 뒤로 하고 증촌으로 가는 길에 흙벽돌을 구워서 길게 쌓고 그 위에 검은 기와를 예쁘게 얹은 담을 보았다. 담벼락을 여름 내 아름답게 만든 담쟁이는 마른 줄기와 잎을 못내 떨구고 쪼글쪼글 모여 있다. 담장은 작지만 운치 있는 기와집을 품고 있고 가을햇살이 그 위에 따스하다. 등굣길 할머니 세분이 방앗간에 서 고추방아를 찧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계신다. 내가 살던 고향에 온것 같은 평촌마을.

고향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쪼글쪼글 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전에 갑천에 나가 물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며 살아 오셨던 분들. 이제는 자식들도 대처로 나가고 고향마루에서 지나온 세월을 가늠해 보시는 분들.

갑천을 더럽히는 축사가 마을에 생기는 것을 반대하며 마을을 깨끗이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어른들이셨다. 갑천이 흐르며 품어 낸 마을이다

<증촌동(曾村洞)>

▷ 시루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서 시루(증)라는 뜻의 증촌동이었으나 더할 曾자 증촌동이 되었다. 무송유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고려건국을 도운 유금필장군이 무송유씨의 시조이다. 이곳에 유씨들이 살게 된 것은 임진란때 유옹이 피난처를 찾아 이곳에 이사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기부터이다.

▷ 왕바위(여의주바위)

마을 뒷산 아래에 둥그런 모양의 커다란 바위들이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다. 왕바위라고도 하고 여의주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여의주바위라고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령스럽게 믿고 있고 마을을 지켜주는 지킴이로 여긴다.

바위 아래에는 마을사람들이 세운 비문도 있는데 마을이 생긴 유래와 한마음정신병원 회장인 유종상선생이 쓴 "...마을사람들이 신령스럽게 여기는 마을 지킴이이다. 이 고장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큰 뜻을 이룰 것을 바라고 있다...." 글이 새겨 있다.

▷ 왕바위아래 샘물

72년도에 조00 군수가 와서 물맛을 보고는 "물맛이 아주 좋다"고 하며 시멘트 50포를 하사해서 마을 공동 샘을 만들었다. 지금은 마을에 수도가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예전엔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다 먹느라 북적거렸을 공동 샘. 이곳에 와서 마을 소식이랑 바깥소식에 귀 기울였을 동네 사람들이 눈에 선하다. 샘은 지금도 솟고 있지만 관리가 안돼 벌레가 날아다니고 더러워져 있다. 샘 바닥의 돌들이 빨갱게 되어 있는데 철분이 많아서 일까?

▷ 갑천과의 관계

이 마을은 갑천과 떨어져 있어서 홍수 피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어릴 때에는 갑천에 나가 물고기도 잡고, 도슬비(다슬기, 올갱이)를 잡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물놀이도 하였다. 지금은 오염이 심해 못한다. 그런데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홍수 때면 넘쳐서 도랑을 복개하고 마을길을 넓혔다.

▷ 유헌봉(71세)할아버지

19대조부터 마을에 안착. 무송유씨 35대손 기성동 노인 연합회 총무,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지키고 사는 것이 당당하신 분.

버스 정류장에서 청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셨음. 아드님이 은하수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자랑하신다.

▷ 어르신들

우리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오늘은 기성동 관내 쓰레기 청소하는 날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였다. "뭐하는 사람들여?" "글썸?" 라고 수군대며 쳐다보시다가, 우리가 가까이 가자 관심 없는 듯 각자 일에 열심인척 하셨지만, 아름다운 미모의 우리 해설사아줌마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금세 일손을 놓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신다. 새참으로 드시는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건네고 소주까지 한잔 권하신다. 사양한 소주 한잔이 좀 아쉽다.

70 - 80세의 어르신들이 정정하게 생활하고 계신다

▷ 유동식 할아버지(87세)

지경다지기 놀이에서 지경소리를 매긴다. 가히 절창이라는 평.

▷ 마을제사

일년에 한번 정월 보름에 왕바위에 모여서 제를 지낸다. 동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 후에 떡과 과일 고기 등의 제수를 준비해서 낮 12시에 동네 어른이 주관하여 마을제를 지낸다.

▷ 세대수

40여 세대가 살고 있음. 자손들이 잘 되어서 잘 살고 있음이 보람 있다 고함.
집성촌이라서 마을의 결속이 잘 되고 마을 앞까지 버스가 들어오고 마을길이 넓어서 교통이 편리함

▷ 영보재 : 무송유씨의 사당인 영보재가 마을의 제일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원정동>

▷ 장 소 : 대전시 서구 원정동

▷ 조사자 : 한완숙, 김미희, 박혜란

▷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 : 원정1구(원정) - 송기순(67세), 송원순(67세)

원정2구(세편이) - 송용준(76세)

▷ 우리 일행이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 손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원정1구 이장님이시고 동춘당 선생님의 10대손인 송기순 할아버지였다.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니 미리 전화로 연락을 드렸으면 노인회관에 자리를 마련하였을 텐데 , 오늘은 약속이 있으시다며 잠깐 시간을 내 주셨다.

마을 이름이 원정인 것은, 바로 이장님댁 자리에 낙향한 원님이 사셨다하여 지어진 것이라 한다. 원정 1구에는 집이 80호인데 인구는 한 집에 부부가 사는 집이 대부분이라 하니 아마도 150-160명 정도가 될 듯싶다.

마을 앞으로는 계룡산 암용추가 발원지인 두계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신도안에 군인부대가 들어서면서 물이 더러워져 항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간에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말았다 한다. 그 후에 계룡하수처리장이 생겨 지금은 흰두루미 (아마도 백로인듯) 가 떼지어 날아올 만큼 물이 깨끗해져 다행이라 하셨다.

동네 안쪽에 폐교 (기성국민 원정분교) 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학동예절서당 대전학당이 자리하고 있어 훈장님을 인터뷰하려고 찾아갔는데, 훈장님이 외출하셔서 돌아서던 중 송원순 할아버지를 만났다.

폐교옆에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송씨 열녀 사당으로 매년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동네에서 산쪽으로 정겨운 다랑이 논을 지나 올라가니 송준길 선생님의 묘소 입구에 200년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묘소 지킴이 댁을 찾았으나 주인은 없고 어렸을 때 보았던 농기구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원정동에 들어오는 첫 버스는 23번 버스가 06:20분에 들어와 06:40분에 나가는데 50분 간격이라 한다.

<세편이>

▷ 두번째 조사지인 세편이 마을 (원정2구) 에서는 마당에 계신 할아버지(송용준 할아버지)와 만났다.

이 마을은 17가구에 대부분 부부가 사니 35명-40명 정도 인듯하다. 원정2구는 다리 건너에 보이는 덕골과 그곳을 지나 안쪽에 있는 세편이 마을까지 두 동네를 포

함한다고 한다.

세편이 마을의 자랑은 물인데 산에서 나오는 암반수를 동네에 끌어다 쓰고 있다며 물맛을 자랑하셔서 우리 일행은 물맛을 보았다.

물맛은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였다. 할아버지 부부는 허리가 많이 아프지만 수술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다.

버스는 다리 건너 덕골 입구에까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세편이 마을에 사는 몸이 불편한 어른들은 무척 힘드시다고 하셨다. 몸이 불편하여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시골 어른들의 모습이 여간 짝하지 않다.

전에 우리 일행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었던 들판의 느티나무는 45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이사오셨을때 손가락 굵기였다니 아마도 50년쯤 된 듯 하다. 원정동의 생활수단은 주로 농업이라고 한다.

<정방이>

▷ 마을 이름: 용촌동 정방이마을

▷ 조사자: 석기문, 최지형, 윤은숙

▷ 조사날짜: 2004년 11월 17일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 정인기(68세) 마을 노인회장

▷ 한가로와 보이는 마을 입구에 구세군 교회가 보여서 사진을 몇 장 찍는데 어느 분이 경계의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으신다. 우리들이 정중히 소개를 하니 이내 마을 이장은 누구며 노인회장은 어디사신지 알려주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다. 노인회장님은 몸이 불편하시다며 방에 누워계시다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 마을이름 유래: 옛날에 소정방이 쉬었다간 마을이라

▷ 총 가구수: 약30가구(가옥은45호정도 되나 빈집이 많다)

▷ 인구수: 60~70명(대개 노부부만 사신다)

▷ 최고령자: 남자84세, 여자86세

▷ 최고령부부: 83세할아버지와 84세할머니

▷ 최연소자: 40대 부부와 중고등 학생가족이 한집 있으나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분들이라 친하지 않은 것 같았다.

▷ 성씨 분포: 예전에는 정씨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김, 오, 최씨등 여러 성씨가 함께 산다.

▷ 교통: 23번 버스가 마을 앞 다리 끝에서 선다.

▷ 경제: 주로 논농사를 짓고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사신다.

▷ 마을제사는 없으며, 특별한 마을 자랑거리는 없고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 갑천과의 관계: 갑천에 전에는 징검다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리를 놓아 편리하다. 다리가 높지 않아 잠수교이다.

▷ 느낀점: 한가하고 평화로워 보인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어린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조용하고, 노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한가해보일 수도 있다.

나의 고향인 농촌이 조금 씨끌벅적 하더라도 어린애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사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음 좋겠다.

<미리미>

▷ 마을이름 : 용촌동 미리미마을

▷ 우리는 마을입구에서 정방이 마을에서 작은아들인 관계로 미림이 마을로 분가 해서 살고 계시는 김 할머니를 만났다.

쪽파를 다듬고 계시던 할머니는 사진모델에 겸연쩍어 하면서도 열심히 포즈를 가다듬어 주셨고 당신은 잘모르신다며 알사탕 두개에 넘어가 바로 길 건너 반장님댁을 손수 앞장서 인도해 주셨다.

66세인 권경철님께서서는 동네 유래에 대해서는 단지 기성동 전체에 제일아름다운 마을 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용두바위를 동네에서는 삼과장으로 부른다고 하며 성씨로는 박씨가 제일 많고 30가구에 칠팔십명이 산다고 하며 96세, 93세, 83세 등 할머니들이 장수하시는 동네라고 한다.

서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23번 버스가 왕복 20회를 동네 복판으로 다니고 있고, 87년 큰 홍수 때 옆 정방이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미림이 마을은 괜찮았다고 하심.

▷ 이동네에는 그래도 30대에서90대까지 골고루 연령이 분포되어있어 초등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조금은 젊은 동네일수도) 논농사 밭농사로 주로 생활하고 있고, 자랑거리는 특별한게 없다시며 은근히 아드님께서 볼링선수로 금, 은메달을 땀다고 자랑하셨다.

반장님댁은 비가 오면 마당이 뻘이 되는 관계로 시멘트 마당이었고 (타작 ,가을걷이에는 유용)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있었으며 마당을 빙돌아 화단이 잘 꾸며져 있었다. 아주머니께서 꽃을 무척 좋아 한다고 .

▷마을제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외지 사람들이 용두바위에서치성을 드린다고 하며 동네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고 한다. 미림이 마을 입구에는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고 오래된 느티나무 네그루가 서로 의지하면서 딱하니 버티고 있었고, 미리미마을은 용두바위를 기점으로 용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마을뒤편이 형성되어 있었다.

6) 평가

※ 갑천 상류쪽에 예스러움을 유지하며 형성되어 있는 마을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약간의 부담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서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주부들 특유의 과감함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 하천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들은 하천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형태와 살아가는 방식이 독특하게 형성되고 있었으며, 마을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있어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호감을 갖고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 하천을 해설함에 있어 주변 마을들의 형태와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해설의 중요한 부분임을 해설가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였다.

7. 예산사용 내역서

항목	집행근거	금액	비고
인건비	1차기본교육 강사비 15강×150,000원	2,250,000원	NO.1 -1,2,3,4
인쇄출판비	자료집 100부×6,000원 홍보포스터 250장×2,000원 현수막(행사현수막, 조류현수막) 150,000원	1,250,000원	NO.2 -1,2
교통비	차량대여비 현장교육10회 (승합차1대)×100,000원	1,000,000원	NO.3 -1,2,3,4
식비	기본교육 4회×25명×5,000원	500,000원	NO.4 -1,2
홈페이지	제작 운영비	500,000원	NO.5
합 계		5,500,000원	

8. 종합평가

가. 수료생 수업평가서

6가지의 문항으로 참가자들이 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전반적으로 강연에 만족을 표하였고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 이번 강연에 참여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기를 바라셨나요?

- 해설사로서 갖게 될 기본지식 및 해설기법
- 막연하게 자연을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나 자신의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
- 환경에 대한 공부, 갑천을 거닐며 너무 아름다운 둔치를 먹고 마시는 쓰레기를 처리 못하는 시민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왜 깨끗이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려고

- 생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자연에 대한 동화
- 대전과 갑천의 소중함을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 환경과 생태에 관해 잘 알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실력
- 갑천에 대한 이해와 사회활동에 대한 모색
- 그냥 바라만 보는 생태보다는 속속들이 알아보고 싶은 심정
- 자연생태에 대해 알고 싶었고 하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싶었다.
- 내가 모르는 갑천에 대해 특히 어류, 조류, 곤충류, 식물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받기 위해
 - 넓게는 하천에 대해 좁게는 갑천의 생태와 역할을 알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를 원했음.
 - 자연과 함께 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싶어서
 - 가르쳐주시는 대로 따라 갈수나 있는지 걱정이 먼저 되었고, 갑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기만 바랬습니다.

※ 이번 강연에서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강연은 어떤 강연입니까?

-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 역할과 해설기법
- 갑천탐사 : 발원지에서 금강합류지점
- 현장학습이 함께 이루어진 강연(식물, 조류, 어류, 곤충)
- 전반적으로 내용이 쉽게 진행되어 모든 강의에 고르게 만족

※ 이번 강연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강연은 어떤 강연입니까?

- 주로 채집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어류, 곤충류 강연을 어려워하셨습니다.

※ 이번 강연을 주최한 녹색연합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강연 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원하고 있음.

※ 이번 강연을 후원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육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갑천생태문화해설사의 심화학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강연 후 이어지는 후속 교육에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 참여와 토론 위주의 수업
- 갑천종주, 현장학습 및 답사
- 갑천의 문화
- 생태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실습

※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수료식을 마치고

여름이 한소끔 폭 끓고 난 9월 초.
막연한 해설가의 꿈을 안은 스무 명의 애엄마들이
녹색연합 나무그늘에 모여 앉았을 때만해도
이후 두 달여의 시간이 가져다 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름의 소박한 꿈들이 앞의 즐거움을 통해 서서히 채워져 나가는 사이
갑천과 우리 사는 대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쌓여져 갔고
약속이나 한 듯 키워진 열매 하나. 바로 지독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숨어있는 갑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바르게 보존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졌다는 점 또한 스스로도 놀라워하는 일이 된 것이지요.

대전의 3대 하천 가운데 유독 도심 중앙을 비껴가다 보니
비교적 원시의 생태환경이 많이도 남아있던 갑천.
근래에 일구어진 서부도심 이동화로
갑천은 둔치를 통한 休와 美의 소임을
대전 하천 전역에 모델로 보여주는 초석을 일구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의 그릇 안에 소담히 들어앉은 대전.
역사 속의 선인들로 하여금 무수한 사연들을 길러내 빛나는 발자국을 남기게 한 갑천.
이 도심의 대동맥으로 흘러가던 갑천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그 모양과 물길이 수술되어지고,
편리와 개발을 저어하는 논쟁의 대상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양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스스로의 뛰어난 자정능력으로
다양한 식물과 곤충, 물고기와 새를 불러들일 수 있는
이 얼마나 어여쁘고 대견하기만 한 갑천이 아니더란 말입니까.

매 시간마다 분야를 달리하며, 열의를 높여가는 우리의 수업은
매 시간마다 감동과 즐거움의 연속,
매 현장수업마다 두 대의 봉고차가 꼭 채워지는 높은 출석률,
우리는 이미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갑천에 폭~ 빠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이웃집 언니처럼 친근하게 설명해주셨던 심상옥선생님.
대전하천의 환경과 관리의 현주소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양흥모선생님.
산새와 바람소리만 귀에 산뜻 적시는 조용한 숲 속에
나무들끼리 벌이는 뿌리와 열매, 잎들의 치열한 생존싸움,

진정하게 인간이 만들어가야하는 우리 숲의 방향,
 무릎을 치며 탄복케하는 재미난 나무와 풀과 꽃이름 이야기의
 생명의 숲 이인세국장님.
 탐립돌보 위에 까맣게 내려앉은 귀한 손님 새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소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아 만난 점심 도시락 나눠먹으며
 진정 열심인 우리교육생들을 칭찬해주셨던 국립과학관의 백운기박사님.
 도안벌 천지에 깔린 갈대숲길에서
 포충망 휘날리며 연신 주워 담은 기는, 나는, 뛰는, 헤엄치는 갖가지 곤충들.
 순서 간데없고 끝없이 쏟아지는 교육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이름과 생리와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차근히 설명해주시던
 대전대학교 조영호박사님.
 불붙은 여고생의 호기심을 달래주시는 선생님처럼
 물속에 점병점병 들어가 물고기 연신 그물에 걸려 잡아 우리들 손위에 올려주시어
 매끄러운 어류의 감촉과 파르르 떨어 생동하는 생명의 존엄을 느끼게 해주신
 국립과학관의 홍영표박사님.
 진정한 해설은 해설자 스스로가 대상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전제된 감수성이 방문객에게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정태춘의 “고향집 가세” 노래를 적잖은 절 독창하시면서 까지
 이 노랫말이 갖는 의미와 감정이입을 연습시키시던
 공주대학교 이재영교수님.
 먼저 땅으로 시간으로 일군 감천사랑의 발을 사심 없이 전부 내어주시며
 자식 같은 손수 모은 솔한 자료와 솔한 과거의 사진들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가기 싫어 뒷심 쏟던 여름 별에서부터 호박잎 서리 맞아 앞사귀 땅에 누운 지금까지
 같은 장소만 해도 예닐곱 번을 가보게 만든 현장답사의 안여중선생님.
 안여중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한분의 질문에 성의 있는 대답을,
 한분을 위해서라도 심 없는 배려,
 한분을 위해서라도 꼼꼼한 관심을 보여주신 맘 좋고 정 많으신 정기영간사님.
 만나면 밝은 인사로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고,
 온 종일 함께 하며 서로 돕고 걱정하는 짝은 동료애.
 주린 허기 나누려 양껏 싸온 점심찬 속엔 사랑이 묻어나고
 헤어져도 게시판엔 서로를 위해 정리로 도배하는 정성과 노력과 관심과 애정...
 바로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끌어주시고,
 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따라오신
 교사와 학생들의 환상적인 조화와 노력에
 정규교육을 마무리하는 뒤편길에서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물심양면 밀어주신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안보이게 도와주신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갑천생태문화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낸 지금.
짧은 두어달은 더 긴 탐구의 과정을 보여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고개는 더 없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대전이 품고 있는 이웃들에게
갑천이 갖는 태생의 이야기와 신비로운 자연의 이야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나가야하는 양보와 미덕의 이야기를
제대로 말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힘의 원천은
우리를 지켜보는 갑천과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최수경

나. 종합적인 사업평가

대전지역의 상황에 맞는 생태교육을 진행할 지도자를 양성하기위한 이번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은 기존의 어떠한 교육보다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발과정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냐는 주변의 걱정을 뒤집고 예상했던 인원(40명)의 신청자가 접수를 하였고 그중 2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진들이 모두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로서 유명한 어떤 강사들 보다 지역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쉽게 진행되어 수강생들이 강연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다.

다만 강사들의 급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정의 변경이 있었으며 견학 및 현장실습이 대상지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견학 및 현장실습의 변경은 강의의 내용을 약간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사업계획

갑천생태문화해설사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생태기행을 만들어 내고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큰 목적아래 계획되고 준비되었다. 또한 하천의 생태를 배우고 알리며 보존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강연을 진행하고 마치면서 해설사들은 갑천에 폭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조류탐조와 하천종주 그리고 갑천의 문화를 찾아다니며 학습하는 모습은 사업의 목적을 대부분 만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5년부터 진행하게 될 갑천생태문화기행을 기획함에 있어 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주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 된다.

※ 수강생의 모집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직업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한다. 어떠한 조직이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조직은 건전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그 조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금번 갑천생태문화해설사는 30~40대 주부라는 특정 집단을 수강생으로 모집하면서 수강생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교육을 마치는 순간까지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강연을 진행하는 강사진들에게도 고무적인 분위기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선발과정(사전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현장답사 및 답사후기 작성, 자기소개서)을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의지를 참가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참석하도록 하는 방식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추동해냈다.

이러한 일련의 모집과정은 정규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강좌를 홍보함에 있어 MBC, CMB,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등 지역의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주부교실, 여성문화회관, 여민회 등 여성단체들을 통해 홍보한 것이 유효했다.

※ 강의 및 교육내용

이번 강좌의 전반적 교육내용은 갑천생태문화해설사 취지 및 이론적 배경, 갑천의 역사문화의 이해, 갑천의 생태에 대한 이해, 해설의 이론과 실제 등 네가지의 테마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갑천을 배우는 것에 주요 포인트가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는 것을 원칙으로 갑천의 일반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물론 생태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수강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워하기 보다는 재미있어 했으며 호기심으로 강의는 진지했다.

또한 강연을 해주신 강사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해주셔서 매 강의 시간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 진행상의 문제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중에서 채집을 통해 진행되는 수업은 수강생들이 재미는 있어 했으나 채집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음 양성과정에서는 실내강연과 실습강연을 하루씩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강사들의 일정조절과 현장답사차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강사진을 2개월 전부터 섭외를 하였으나 갑자기 발생하는 애기치 못한 강사의 일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체 강연의 흐름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현장 수업이 대형버스나 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많아 승합차량이 없는 단체의 사정으로 매번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참가자

들이 주부이다 보니 오전 10시의 강연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9.강의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 테마가 있는 갑천생태문화기행

※ 갑천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테마를 갖고 월 1회진행하는 갑천생태문화기행이다.

※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당 체험학습이 가능한 최대인원 30명을 모집하며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갑천생태문화해설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 기존의 많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만 참가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느낌을 공유하여 교육효과의 지속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테마	월	참가대상	진행	비고
갑천 문화기행	3월	가족단위	갑천생태문화해설사(문화팀)	
	4월	가족단위		
갑천 들꽃기행	5월	가족단위	갑천생태문화해설사(들꽃팀)	
	6월	가족단위		
갑천 물 기행	7월	가족단위	갑천생태문화해설사(어류팀)	
	8월	청소년		
갑천 마을기행	9월	가족단위	갑천생태문화해설사(문화팀)	
	10월	가족단위		
갑천 철새기행	11월	가족단위	갑천생태문화해설사(조류팀)	금강철새
	12월	청소년		갑천철새

□ 나. 주머니 속 갑천 (도감)

※ 갑천의 상류, 중류, 하류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들꽃, 조류, 어류, 곤충)를 모니터하고 주요지점별로 대표적인 자연생태를 조사하고 정리한다.

※ 갑천의 상류, 중류, 하류에 넓게 퍼져 있는 마을들과 문화유산을 찾아 전해 내려오는 날 이야기와 문화적 가치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 계절에 따른 갑천의 변화되는 모습과 유역에 따른 생태의 변화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기위한

※ 연차적 단계를 두어 조사하고 향후 3년 안에 제작 발간한다.

※ 지역의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조사위원회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신뢰

도를 담보한다.

※ 제작되는 도감은 갑천생태문화기행에 자료집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하천교육교재로 사용하도록 한다.

조사항목	조사일정	조사방법	참고자료
문화유산	1년차	갑천의 전 구간에 보존가치와 역사적의미를 갖는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대전시에서 발간한 문화유산 총람 참고
야생화 및 수변식물	3년간 지속	주요 조사지점을 선정 월 1회 이상 현장 조사 사진작업 및 문헌조사	대전자연환경조사 자료 참고
곤충 및 어류	3년간 지속	주요 조사지점을 선정 월 1회 이상 현장 조사 사진작업 및 문헌조사	“
마을	1년차	현재까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마을중심으로 문헌조사 및 주민 면담조사	갑천의 뿌리를 찾아서 참고
조류	3년간 지속	주요 조사지점을 선정 주1회 현장 조사 사진작업 및 문헌조사	대전자연환경조사 자료 참고

※ 마지막 해인 3년차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도감을 제작하기위한 활동에 주력한다.

□ 해설사 심화학습

- ※ 환경교육 철학에 대한 학습
- ※ 체험학습에 관한 연구
- ※ 갑천의 구간별 생태,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 ※ 해설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이상은 갑천생태문화해설사들이 원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시급성과 실현가능한 교육으로 준비하여 진행한다.